탈 경계화 시대의 새로운 숭고의 미학

동서양의 종교적 도상들이 총출동하는 전시장은 두터운 검은 가림 막으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가상과 환영의 매혹이 더 강해진다는 점에서, 전시장은 그 자체로 사이비 종교의 분위기에 어울 리는 것 같다. ‘무아몬(無我 Monster) 프로젝트’라 붙여진 전시부제는 이것저것이 뒤섞인 괴물의 실체, 그리 고 주변과 혼연일체된 무아의 경지를 결합시킴으로서 혼성주의 미학을 드러낸다. 동서양은 물론 과거와 현 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천 개의 눈을 가진 선녀]는 석가의 몸통과 기독교풍의 천사날개, 도교적인 선녀얼굴이 결합된 도상이다.

선녀는 형광 색이 들어간 원색 안료로 칠해져 있으며, 블랙 라이트를 받아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이러 한 광학 효과는 도상의 물질성을 삭감하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 뿐 아니다. 선녀 상에는 천 개의 눈--힌두교 신화에서 나오는 인드라의 천 개의 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을 상징하는 레이저가 박혀있어 사방팔방으로 붉은 색 레이저 문양을 쏘아댄다. 무성(無性)의 존재로 알려진 천사상과 창녀촌 간판

으로나 쓰일 것 같은 나신의 여성상들이 어지럽게 떠다니는 가운데 우뚝 서있는 도상 역시 그 자체로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 만신전을 이룬다. 이한수의 작품은 섞일 수 없는 것을 섞는 불경스러움과 키치적인 가벼 움이 짬뽕되어 있다.  
[백호를 가진 흑두]는 인터랙티브 영상설치로, 검정 색 불상 머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저 포인터가 설치 되어 있다. 천 개의 눈을 상징하는 레이저가 만들어내는, 후광같이 뻗어 나오는 문양들이 역동적이다. 또한 불두의 양미간에는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관객의 모습이 디지털 만다라의 형식으로 실시간 변 형되어 맞은편 벽면에 비추어진다. 불두 앞에는 거리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관객의 모습이 확대 축소되며, 관객은 불두의 제 3의 눈 백호를 통해 디지털 만다라로 재구성된다. 누워있는 불두 앞에 펼쳐진 디지털 만 다라는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방 벽면 가득히 펼쳐지는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에서는 우주복을 입은 여인이 가부좌를 틀고 소리를 낸다. 발성명상이라고 한다. 요상한 상징적 표지와 무지개가 함께 떠 있는 산수 좋은 그곳에 우주인 마스크 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종교의 추종자이다. 명상자가 내부의 기(氣)를 모아 소리를 내면, 화면 곳곳이 울룩불룩하게 변형된다. 작가는 그것이 미지의 생명체의 움직임을 상징한다고 한 다. 이 투명체가 겹치는 곳의 화면은 둥근 확대경이 지나가는듯이 왜곡된다. 주체와 세계가 상호 작용하면 서 동시에 변형되는 것이다. [무아 춤]에서는 명상음악에 맞추어 느릿하게 춤을 추는데, 서양 카드처럼 대칭 이 된 짝패가 중력을 초월하여 공중부양을 한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사라지는 짝패의 존재는 이 전시 의 성격을 가늠해준다.

피에르 고디베르는 현대문화가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신성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여기 서 신성이란 세속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의 신성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과 뗄 수 없이 뒤섞인 그것이다. 하기야 언제는 안 그랬겠는가. 그렇지만 이한수의 작품에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코드들의 광적인 혼합과 이 종 교배는 지구촌 문화의 동질성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증한다. 종교도 상품처럼 소위 잘 나가는 코드 의 구색을 맞춘다. 신성은 두려움과 공포, 경외감을 낳기도 하지만, 소망과 매혹을 낳기도 한다. 이한수의 작 품에서는 소망과 매혹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현대화는 자연을 포함한 세계와의 오랜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탈 신성화시켰지만, 인간은 본래 종교인이다. 기존 종교가 아니어도 뭐든 믿는 것이 인간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 이성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예 술에 대한 믿음..기타 등등. 인간은 우주공간에 내버려진 우연적인 존재임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그 래서 가장 훌륭한 것에서부터 최악의 것까지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대화가 시도된다. 물론 이러한 유행 속 에서 그릇된 길과 유사교리, 가짜 도사들이 급속히 번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세속화, 상품화된 와

중에 뭔가를 믿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기획들은 단순히 사기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과 이윤추구의 동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그럴듯 한 품목들을 혼합한 상품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한수의 종교적 도상의 맥락이다.

[무아 옴]이나 [무아 춤]에서 정신이 직접 자연에 영향을 준다든가, 중력을 초월하는 모습은 ‘자연법칙을 거 스르는 효과들을 산출하는 기술’이라는 마법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부합되는 듯하다. 마술에 이용되는 것은 인과론적 결정주의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들에 대한 지식이다. 프레이저는 마법을 ‘설익은 기술같은 가짜 지 식’이라고 폄하했지만,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와해되는 시뮬레이션 시대의 전위는 바로 마술사라고 해야할 것이다. 마술은 최전선에 있는 과학 기술자들과 예술가들, 상품 판매업자들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이한수 의 작품에서 마술은 신성의 활동적인 현존, 그리고 자연 전체의 힘과 에너지의 순환 속으로 끼워 넣어진다. 소용돌이치는 마술적 힘들은 특별히 정착하는 장소들이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춤이나 발성 수행자의 비전은 우주에서 활동하는 힘들과 결합한다. 신체 깊숙한 곳으로부터 뽑아내는 발성 수행자의 목소리는 사이비 종교의식에서 보여지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넘어서 구경꾼까지 그 힘이 전달된다. 그점은 작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상 내부에 어느 정도는 침투해 있음을 알려준다. 그의 작품들 하나 하나에는 ‘그럴듯함’을 연출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특히 검정 불두 앞에서 펼쳐 지는 상호작용적인 디지털 만다라는 만다라의 현대적인 버전이다. 기하학적이고 상징적인 형상들을 갖춘 만 다라는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상징의 형식으로, 원래 본질(Mand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와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끝없이 이미지가 흘러가는 이한수의 만다라는 정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탈중심화 시킨다. 현대의 철 학자들은 이러한 탈중심화가 현실에서 점증하고 있는 의미 파괴와 주체의 파괴에 대한 반영이라고 지적한다 . 그의 종교적인 도상자체가 교란된 존재를 압축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적인 자아의 신화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작품에는 끝없이 경계를 넘어서고 확장하려는 의지가 존재한다. 그것이 매체의 힘을 통해 증 폭된다. 맥루한이 말하듯 기계시대에는 우리의 육체를 공간적으로 확장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중추신경을 전

지구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현대과학과 신비주의를 결합시킨다. 실재의 사라짐은 자연과 인 간, 즉 객체와 주체간의 상호결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한수는 레이저를 비롯한 기술적 매체들을 주체의 교란을 꾀하는데 사용한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경계소멸과 비합리주의를 만들어내는 현대문화의 특징이다. 거울반사처럼 펼쳐지는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간격을 환영을 통해서 메워버린다. 매체는 실재와 복제된 이미지의 간격을 용해시키 는 것이다. 이 닫혀진 공간과 붕괴된 시간 속에서 이미지들은 덧없이 공전한다. 이 순환적인 공간 속의 주체 는 거울효과를 지니는 매체들 사이에서, 과거나 미래의 의미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현재의 시간에 머물게 된 다. 그것은 거울의 방 속의 메아리 효과인 것이다. 관객은 이 메아리 속에서 확장된 자아에 사로잡힌다.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이제 예술이 반영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이미 현실 자체가 이미지, 구경거리, 환영,

허구가 아닌 것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대중매체가 너무 강력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있어서, 대중매체 가 재현하는 현실과, 실제 살아가는 현실과의 차이가 폐기될 정도이며, 이제 영상과 삶은 하나가 되었다. 결 국 현대 예술가는 모형화 된 현실을 다시 모사 하는데 익숙해진다. 그 결과가 탈경계화, 주체의 해체(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숭고sublime의 문화, 즉 포스트 모던 문화이다. 이한수의 작품은 이 새로운 숭고의 미학을 잡종 종교라는 모티브를 통해 보여준다. 그것은 현대의 범신론과 신비주의 문화와도 닿아있다. 대중 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새로운 유심론은 초현대식 스튜디오에서 합성된다. 이미 실재와 허 구를 나누는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작가로써는 그것이 테크놀로지든, 사이비 종교이든, 천박한 대중 문화든 순수예술이든 무엇이든 상관할 바가 없다.

이선영\_미술과 담론

In the venue thoroughly excluding outside lights by thick black curtains are all kinds of religious icons. The place itself looks like befitting the set of a psedo-religion in that the darker it is, the stronger its ill usion and fantasy are seductive. Under the subtitle of “MU A Mon Project” the exhibit explores hybrid a esthetics through combining a monster intermingled and a mood of selflessness. Lee Han-soo intends t

o offer a vision, crossing the borders between past and present, illusion and reality. Titled “A Fairy with Thousand Eyes,” a statue icon is the combination of the Taoist face, Buddha’s body and angel’s wings.

Painted with fluorescent, primary colors and set under black lighting, it intensively gives stimulating visu al images. The statue has the lasers - symbolic of the thousand eyes originated from “Indra” in Hidu m yth - embedded on its whole body, radiating red laser patterns in all directions. Those patterns such as

the shapes of angels known as asexual and female nudes seemingly used in a brothel signboard are fl oating in disorder.

The work entitled “Black Heads with Baikho” is an interactive video installation. In the work the black he ads with the lasers in them are placed in a regular space. The patterns projected by the lasers, symboli c of thousand eyes appear greatly dynamic. Between the head’s eyebrows are the web-camcorders thro ugh which the real-time scenes of the viewers are taken, metamorphosed and reflected onto the opposi te wall in the form of Mandala. The viewers are seen enlarged or reduced by a distant detecting sensor

on the heads. Through the third eye, “Baikho” our scenes are digitally reconstituted in the form of Ma ndala. The digital Mandala displayed before the lying black heads, despite its variableness, maintains a meditative mood.

In a video single-channel work occupying the entire wall surface a woman in a space suit sits with her legs crossed, muttering incantations. The woman sitting with an alien mask and against a backdrop of b eautiful scenery, rainbow and erratic symbols is a follower of the religion claiming that aliens created hu mans. If a meditator utters sounds after bringing all his ‘Gi’ together, some scenes seen through the m onitor become uneven here and there. The artist says it is symbolic of the movement of unidentified cr eatures. As if seen through a magnifying glass, the scenes seem distorted and enlarged wherever they overlap. In “Mu A Dance” a woman is slowly dancing a Mu A Dance to the meditation music. The danc ing woman, buoyant in the air seems exactly one with the symmetry of upper and lower parts.

Pierre Gaudibert points out modern culture now develops into something sacred, beyond the merely cul tural. Sacredness here of course refers to something inevitably mixed with the secular, rather than facing them. Lee Han-soo has tirelessly endeavored to fuse and crossbreed a wide variety of elements. His fa natic clinging to blending intercultural factors paradoxically proves all cultures of the globe have already

been in a state of extreme homogeneousness.

Although everyone has been desanctified by modernization, a human being is intrinsically religious. If no t established religions, he believes in anything: he often believes in advancement, reason, money, art, an d so on. Works of Lee Han-soo with their religious icons thus tries to be a commercially seductive prod uct to the general public.

Both in “Mu A Om” and “MU A Dance” some scenes are considered quite supernatural: Spirit has a first -hand impact on nature and disregarding the law of gravity, a behavior is done. It exactly coincides wit h a terminological definition of the word ‘magic’: ‘Magic’ refers to a technique that causes effects going

against a law of nature. Magic utilizes not the law of cause-effect determinism but others. Even if Fras er disparaged it as the ‘false knowledge like an unripe technique,’ a magician is truly avant-garde in the

age of simulation in which the true appear indistinguishable from the false. In this sense scientists, arti sts and merchants have a rendezvous at the crossroads of ‘magic’.

In his work a vision of dance and utterance practitioners unites the force of space. Their voice extracted from a depth of the body is powerful enough to be conveyed to the viewers. To make his work look ‘plausible’ an elaborate apparatus is being adopted. The manifestation of a digital Mandala is interactivel y done as a contemporary version of Mandala. Its shape geometrical and emblematic is to represent th e truth of the universe, showing in figure a state of enlightenment and its meanings that we all ‘posses

s’(la) ‘true nature’(Manda).

Lee’s Mandala whose image flows boundlessly does not centralize our spirit but decentralize it. Such ‘de centralization,’ modern philosophers point out, reflects the destruction of meanings and the subject. His religious icon, the digital Mandala is a contracted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 in disorder, implying tha t the myth of unified self has been collapsed. His work carries a tireless will to cross borders and exten d its realms. Such will is further strengthened by force of media. As Mashal McLuhan comments in the age of machine we extend our body spatially, but nowadays we expand our central nerve and consciou sness. Real being no long exists as the result of interconnections between man and nature, subject and object.

The critic Terry Eagleton indicates the arts now have nothing to reflect and reality itself turns to an ima ge, illusion, fiction and a spectacle. As the influence of the mass media is massively powerful, the world it represents is no longer distinguishable from the real one we are actually living. Our life and the mas s media become one at last. An artistic work thus is referred to as the recopy of reality that is present ed by the mass media. Lee’s work demonstrates the sublime through the motive of a hybrid religion. Hi s work seems to offer the public dream and vision. As an artist who attempts to break down barriers b

etween reality and fiction, he does not mind if his art remains highbrow or lowbrow, pure art or mass culture.

By Lee Sun-young, Art and Discourse